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인터뷰

평화통일 가능성 충분... 인정하는 자세 놓치면 안돼

“스님! 스님! 터졌어요. 터졌어요. 진돗개 하나가 발령했어요.” “진돗개? 무슨 소리야?” “북한이 연평도에 해안포를 발사했어요.”

11월 23일 오후 5시.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과 인터뷰를 마치고 이사장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평화재단 직원들이 열렬히 스님에게 속보를 전했다. “스님은 평정을 유지했다. ‘평화’를 주제로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인터뷰 내용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폭탄은 터지고, 민간인이 죽었다. 과연 무엇이 평화이고 평화를 위한 것일까. 정리=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평화란?

-갈등이 없는 것, 조화로운 것이다. 평화는 아무 문제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갈등 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평화다.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서는 첫째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 둘째 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예를 들면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남한은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지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옳다거나,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제, 종단 내부의 문제건 그것을 지혜롭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평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 3대 세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이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도 통일을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고, 대화하려면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다. 아니면 통일을 포기하든지.

통일이 곧 평화인가?

-남북의 궁극적 평화, 완전한 평화는 통일이다. 통일 이후에는 우리 내부적 갈등이 있을 뿐이지 남북의 갈등은 아니다. 또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을 뿐이지 남북간의 갈등은 없다. 그렇다고 남과 북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평화가 도래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통일이 되기 전에도 남한은 북한에 대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이해하면 남북간에 평화는 유지된다.

전쟁에 대해서 무뎠던 것 같기도 하다

-늑대소년과 같은 것이다. 마약도 계속하면 마약 효과가 떨어지고, 음식도 같은 것을 계속 먹으면 맛이 떨어지듯, 전쟁의 위기가 계속되면 위기의식의 무뎠다. 일종의 피로감이다.

전쟁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가?

-전쟁은 안하는 것이 좋다. 지금 전쟁이 나면 한국전쟁보다 피해가 더 클 것 아닌가. 앞으로 또 60년 100년을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하지만 절대로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일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

해결할 위치에 있다면 남북문제는?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의 내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에 의존할 우려가 있다. 우선 굶주리는 일반 주민에게는 먹을 것을 충분히 줘야 하고, 중간 간부에게는 질 좋은 남쪽 물건을 지원해 주어서 한국제가 좋다고 생각하도록 하고, 최상층 간부에는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일정기간의 체제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 당장 급한

前 정권은 지원해주는 것만 했지만 북한 제도의 변화는 요구하지 않았다. 현 정권은 제도의 변화만 요구하고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다. 둘 다 모순이다.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종전 선언을 멀리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규모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도 우선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 그래서 1단계 작업이 통일이다. 2단계는 통일된 한국이 일본과 경제 공동체 구성, 3단계는 중국과의 협력이다. 현 상태에서 남한이 중국과 협력을 한다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서 독자성도 국가의 비전도 없어진다.

북한의 위협과 남한정책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실망한 적은 없는가?

-실망한 적은 없다. 다만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답답하다. 그래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 세상은 항상 난국이다. 세상이 어디 내 뜻대로 되는가. 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의 과제도 남아있는 것 아니겠는가. 더 연구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다. 상대가 잘했나 잘못했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통일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냐가 중요하다. 요즘은 정부의 정책변화에 별 기대를 안 한다. 전에는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과, 통

일정책안도 내보고 했는데 3년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곧 발등에 불이 떨어져 허둥 될 것이다. 지금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풀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을 찾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바람직한 대북 지원은

-급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해야 하고, 자생력을 키워주는 개발지원은 북한의 제도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지원해야 한다. 우선 굶어 죽는 것은 도와줘 죽음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전 정권은 지원해주는 것만 했지만 북한 제도의 변화는 요구하지 않았다. 현 정권은 제도의 변화만 요구하고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다. 둘 다 모순이다.

평화재단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동아시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은 미국 쪽으로, 북한은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분단이 영속화될 위험이 있다. 이것을 막으려면 중국이 북한에

통일을 풀어내고자 출발했다. 하지만 평화재단이 재 역할을 하기도 전에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빠르게 표면화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앞으로의 방향?

-평화연구원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정책을 생산하고, 교육원은 민족적 리더십을 키우는 일을 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일반인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평화와 통일의 일꾼으로 키우고자 한다. 일부는 대중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정부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갈등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영기적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 존재의 집합으로 보고 있

다. 이 세계는 상호 개별적 존재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연관돼 있다. 개별적 존재의 집합이라고 볼 때는 승리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러나 영기적 존재임을 알면 상대를 해친 것은 곧 나를 해친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지는 것으로 성공을 삼는다. 그런데 이겨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자와 불교계의 자세는?

-불자라면 자기 수행을 통해 자유와 행복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 좋은 법을 확산시키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불자들이 기도라는 미명하에 노력 없이 늘 공짜만 바란다. 부처님은 공짜로 무엇을 주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들을 깨우쳐 주는 지혜로운 분이시다.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와 평화에 대해

-종교의 가르침은 세상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풀리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종교의 가르침을 절대화 하면서 상대 종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갈등



법륜 스님은 평화재단 국제구호단체 JTS 이사장으로서 평화통일 연구 및 활동가 육성 교육과 대북 식량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통일, 환경, 기아, 질병, 문명퇴치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 분쟁이 일어난다. 나와 다른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현실은 말이 불교인이고, 기독교인이지 별 차이가 없지 않은가? 불교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한지 점검해 봐야 한다.

포용성, 이해, 인정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 북한이든 기독교이든 종단간의 관계에서든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번 갔으니, 너희도 한번 오라는 것이 평등은 아니다. 어른과 아이가 똑같은 양을 먹는 것이 평등인가.

최종 목적은

-개인은 자유와 행복, 즉 해탈과 열반이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수행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전쟁이 나서 폭탄 맞으면 수행자도 죽는다. 또 환경오염이 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수행자도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평화를 지키고, 환경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고 하고 ‘자리타타(自利利他)’라고도 한다.

가족의 건강지킴이! '휘나 핫 반신욕기'

무릎찢질, 허리찢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대 대류현상이 일어나 피가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 핫 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 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찢질, 허리찢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리건강(주)은 철,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특 제10-09670호) 발명의 명칭 :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 제조방법



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 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 한의원, 산후조리원, 복지원, 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 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가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했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 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 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도 가열 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가능성을 갖는다. 휘나 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 핫 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열품이랄 수 있다.

문의 : 02-875-0600

www.hwinahot.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 (주)휘리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리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 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